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개발 사례 연구

대구 북성로 '믹스카페북성로'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Complex Cultural Space Development
Using Modern Architecture

Focus on 'Mixcafe BOOKSUNGRO' in Daegu-City Buksung-ro

주 저 자 : 김헌재(Kim, Heon Jae)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oldj007@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sr.2022.4.64>

접수일자 2022. 11. 21.. / 심사완료일자 2022. 12. 17. / 게재확정일자 2022. 12. 26.

Abstract

It is not easy to regenerate modern age buildings that has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through design. Urban regeneration and retro sensibility are popular across the country, and neglected modern spaces are attracting public attention. However, there is a difficulty in finding well-developed design cases due to uniform regeneration project requirements, limited periods,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supporting organizations, operators, and developers, and lack of communic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comprehensive experience, ranging from the planning stage, such as brand design and space design, to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well as the site selection made by the author and project selection process. Further, it discusses the histor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Buk-seong-ro, the project site, as well as the 'Buk-Seoseong-ro Modern age Building Renovation Project' the background for selecting the location of the target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modern architecture. It presents design examples for each floor, including market research, naming, and demolition, and details the author's experience as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eded. The conclusions after carrying out this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before design development, an understanding of the building and the historical, cultural, and social perspectives of the surrounding places is necessary. Second, thorough planning and cost calculation are important because, rather than constructing new buildings, existing ones are to be used. Third, demoli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design process, not a stage of preparation for construction. Lastly, creative and flexible thinking that can respond to unexpected situations, and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experts are required. A comprehensive mindset shift considering not only design but also social responsibilit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nvironment as well as business aspects is essential.

Keyword

Regeneration(재생), Communication(소통),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

요약

오랜 시간 방치된 근대건축물을 디자인을 통해 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과 Retro 감성이 유행하며 소외되었던 근대공간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재생사업과 제한된 기간, 지원하는 기관과 운영자, 개발자 등과의 견해 차이 또는, 소통의 부재로 제대로 개발된 디자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직접 입지선정 및 사업선정 과정과 더불어 브랜드디자인과 공간디자인 등 기획 단계부터 시공과 운영까지 종합적 경험을 토대로 디자인 개발과정을 소개한다. 사업 대상지인 북성로의 역사성과 장소적 특징을 비롯해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과 대상지 건물의 위치선정배경과 주변 근대건축물을 소개한다. 본론에서는 시장조사, 네이밍, 철거를 비롯한 각층별 디자인 사례를 제시하며, 디자인과 시공을 함께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개발 전에 먼저 건물에 대한 이해와 주변 장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비용산출이 중요하다. 셋째, 철거는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중요한 디자인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발상과 많은 돌발상황에 있어서 대응 가능한 유연한 사고와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은 물론 경영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고전환이 중요하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입지선정과 사업소개

- 2-1. 북성로와 근대건축물
- 2-2.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소개
- 2-3. 위치 및 건물선정 배경

3.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재생디자인 사례 분석

- 3-1. 근대건축물 재생디자인 개발사례

3-2. 분석결과

4. 복합문화공간 ‘믹스키페북성로’ 개발사례

- 3-1. 브랜드 네이밍
- 3-2. 철거작업
- 3-3. 1층 내부와 파사드
- 3-4. 2층 내부와 다다미방
- 3-5. 3층 내부와 ‘갤러리 믹스’
- 3-6. 정원
- 3-7. 복합문화공간 활동사례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환경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있다. 그런 이유로 친환경 디자인, 도시재생 디자인, 리사이클링을 넘어 업사이클링 디자인까지 디자인 분야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이고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은 기업의 아윤 추구하고 맞물려 항상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 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하였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개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속가능디자인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나 건축물 또는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이 사용기한을 다하여 폐기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재생(Regeneration)’은 ‘재탄생(Rebirth)’이라는 생물학적 의미에 기초한 것으로 그 기원을 두고 있다.¹⁾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그 의미를 리사이클

(Re-cycle) 또는 업사이클(Up-Cycling) 정도로 이해하고 작업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생’의 의미를 ‘Rebirth’ 즉 ‘부활’이라는 의미로 접근하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용도가 사라지고 폐기되지만, 혁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상으로 디자인 과정을 거치면 또 다른 용도가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 이런 행위는 한정된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70여 년 이전에 건립해 기능을 잃고 방치된 근대건축물을 재생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MZ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전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의 생생한 시행착오와 디자인 개발과정을 소개한다. 본 연구가 근대건축물을 재생하는 후학 디자이너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사례 소개는 대구시 중구가 진행한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에 일부 도움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담론이 아닌 도시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의 출발점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위치선정 과정과 건물선정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디자인

1) 남미경,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슬로디자인 활용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2015. Vol 21, No.3. p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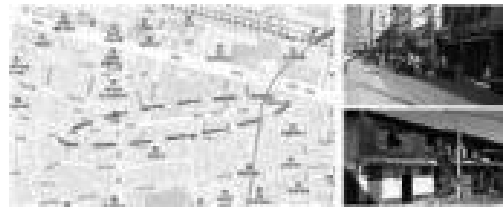
개발까지 전 과정을 보여준다. 본 건물은 3층 콘크리트 건물 1채와 2층 목조가옥 1채로 구성되어있으며, 두 건물을 연결하는 테라스와 건물 뒤편에 정원이 있는 구조이다. 근대건축물의 이해와 북성로라는 장소의 역사성과 문화 예술사적 가치를 함께 소개하며, 문화에 술가들이 모여 공간구성 및 기획전 등을 진행하면서 공간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2. 입지선정과 사업소개

2-1. 북성로와 근대건축물

북성로는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구도시의 중심으로 대구역과 근접해 있으며 대구역 사거리 구 대우빌딩 뒤편에서 달성공원 입구까지 대로변과 주변 일대를 말한다. 북성로는 조선시대 대구읍성의 북쪽 성문인 공북로의 앞길로 일제에 의한 강제점령기에 일본인 거류지를 형성하고 일본 상인들의 상권을 넓히기 위해 읍성을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형성된 곳이다. 이때 성을 허물고 난 신작로가 북성로이며, 이는 대구 최초의 신작로였다. 또한, 1909년 순종황제의 남쪽 순행 시 지나간 여가길이기도 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리이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난민이 대구에 모여들었고 북성로와 향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문인, 화가, 작곡가 등의 예술인이 모여 휴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예술세계를 이어간 곳이기도 하다. 이것이 대구를 문화예술의 수도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북성로 일대에 위치한 청포도 다방, 백조 다방, 꽃자리 다방, 백록 다방, 호수다방 등에서 예술인들이 모여 출판기념회, 전시회를 비롯한 소규모 공연과 모임 등을 개최하였다. 이 장소들은 현재 그대로 남아 외관상으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거나, 일부는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그 터만 확인할 수 있다. 이곳 북성로에는 해방 이후 지역의 의류상가들이 많이 들어섰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곳은 차츰 공구 골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기계공업의 발달로 관련 업소가 계속 늘어나 집단상가를 이루면서 오늘날의 북성로 공구 골목이 형성되었다.²⁾

2) 최정수, 북성로 100년 거리조성사업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17, pp5~6



[그림 1] 북성로 위치와 거리 모습

북성로 지역의 근대건축물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196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다. 1910년~1930년 정도에 지어진 적산가옥도 상당히 남아 있으며 그 형상을 보존하고 있는 곳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할 건물도 1930년대로 추정되는 박공구조의 적산가옥으로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형태를 지니고 있다. 현재도 건립 70년이 되어가는 195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대구시의 근대건축자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근대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그림 2] 현재 북성로 일대 근대건축물

2-2.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소개

본 사업의 목적은 대구 중구의 근대역사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근대골목중심의 대구 읍성공간을 부활시켜 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근대건축물의 입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향후 도시미관 증진과 관광객 유치와 거리 활성화를 기대한 사업이다.³⁾

북성로와 서성로의 1920~1930년대의 건축양식을

3) 2014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백서, 대구시 중구청, 2015,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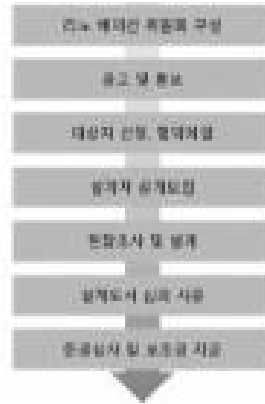
대변하는 근대건축자산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공·폐가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갈 창조인력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의 건축물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 스토리 등 도심재생 사업의 효과가 큰 근대건축물과 한옥에 대해 리노베이션사업을 추진하고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경관의 연속성 및 거리와의 조화 등 다양한 도시적 요소를 살린 문화, 예술적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업은 ‘순종황제어가길조성사업’ 및 ‘술술술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 사업이다.



[그림 3] 북성로 일대와 사업 대상지

사업 대상지는 북성로 및 그 주변으로 근대건축물 및 한옥으로서 1960년대까지의 근대 건축양식을 대변하는 건축물로 역사성, 학술적 가치와 함께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제한하였다.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자본 보존사업 방식으로 사업 후 5년 이상 유지관리의무와 완공 후 5년 이내 사업비가 지원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범위는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4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도 가능하다. 공사는 건물 외관을 중심으로 지붕, 건물기초, 구조보강, 간판 등 원형에 근접한 개보수를 하여야 하고 설계비와 건물 내부는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로는 대상지 근대건축물에 입주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상권의 가치 창출과 활성화에 있으며, 건축물이 지닌 장소성과 형태적인 특징에 부합하는 원형복원을 통해 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추진 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 리노베이션사업 추진 일정

2-3. 위치 및 건물선정 배경

장소는 거리와 골목, 건물과 구조물, 그리고 많은 물건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물리적 요소로만 이루어진 곳은 아닐 것이다. 물리적 기반을 요소로 하여 그 위에 사람들의 흔적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소통하며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지역공동체 문화와 개인의 삶과 역사성이 함께 반영된 공간이다.⁴⁾



[그림 5] '믹스카페북성로'의 위치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북성로라는 공간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예술적 인지와 함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본 건물은 대구읍성의 북쪽 문인 '공북문'의 바로 옆에 세워진 건물로 역사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구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대구의 중심이어서 접근성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4) 김수현, 대구 북성로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장소브랜딩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9, pp 33~34

변화가인 동성로와도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고 콘서트 하우스와 창조혁신센터 등 많은 문화 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있는 위치이다. 북성로는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결정적인 이유는 2014년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믹스카페북성로’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장소를 찾아다니고 많은 건물을 살펴보았다. 3개월 정도 북성로 곳곳을 누비며 최종적으로 선택한 장소가 현 장소이다. 방문 당시 건물은 비어있었고 1층은 임대를 놓는다는 문구와 함께 2층, 3층은 폐가나 다름없는 버려진 공간이었다. 북성로 근대건물은 70% 이상이 1층만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외는 공실로 남아 있다. 수리하여 사용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구조가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림 6] 계약 당시 건물의 전면과 후면

본 건물은 대구시 중구 북성로 1가 40-6번지(42-5, 42-3, 42-6, 40-1, 40-4) 외 5필지로, 총면적 119㎡, 연면적 295.5㎡으로 1950년대 지어진 전면부 A동은 1층 63.9㎡, 2층 63.9㎡, 3층 63.9㎡인 3층 콘크리트 양식과 뒤편에 위치한 B동은 1층 55.1㎡, 2층 43.8㎡로 연와조 박공 구조의 목조주택으로, 1920년~3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로 이루어졌다. 건물의 전면부가 원형보존이 잘되었으며 전형적인 근대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2층과 3층은 작은 테라스와 아라베스크 무늬의 철제 장식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심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1층은 전에는 공구를 파는 가게로 사용되었고 2층은 태극다방으로 1960~70년대에 북성로 지역에서 이름난 곳이었다. 3층은 창고로 사용하였지만, 방문 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후면부인 목조건물은 1층은 임시로 주택으로 꾸며져 있었고 2층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70% 이상 파손된

상태였다. 흥미로웠던 점은 건물구조가 전형적인 적산가옥의 목구조 형태로 공법 자체가 일본식 상가 목조 구조로 1930년대의 시대적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과 1930년대 지어진 목조건물이 함께 맞붙어 있는 건물의 형상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물을 선정하였다.

3.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재생디자인 사례 분석

3-1. 근대건축물 재생디자인 개발사례

대구 중구는 2012년부터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을 국내 유일하게 먼저 진행하였고, 김광석길과 더불어 근대골목투어를 진행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에 새로운 트렌드를 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지역에 위치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디자인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첫째, 건축사무소와 카페가 공존하는 ‘카페 삼덕상화’[그림 7]이다.



[그림 7] 카페 삼덕상화

북성로 공구거리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카페이다. 1930년대로 추정되는 이 건물은 2012년 완공한 건물로써 한 지붕 아래 건축사 사무소와 카페가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6년간 ‘태양철망’이라는 간판만 남아 있는 채 비어있던 공간을 ‘오피스 아키텍톤’이라는 두건축사가 함께 운영하며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다. 현재 좌측공간은 ‘카페 삼덕상화’로 운영하고 오른쪽은 건축사사무실로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2

층은 세미나룸과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건물은 삼인삼 개념으로 한 건물 안에 카페와 건축사무소를 복합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운영자가 바뀌고 처음 개장 당시의 조건과 이후 조건들이 바뀌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설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구조와 디자인 변경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빈번한 충돌이 일어났다고 한다. 결국은 디자인 설계자와 카페 운영자의 생각 차이로 인해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고 여러 번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공간이 좁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북성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북성로 공구박물관'이다.



[그림 8] 북성로 공구박물관과 내부 전경

북성로를 대표하는 공구거리는 공구라는 물리적 재료를 넘어 분업과 협업, 네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술생태계 공간이다. 박물관은 북성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당시 본 건물은 표면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쌓여 있었다. 내부는 목조 형태의 박공 구조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외부의 마감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도저히 목구조라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건물 모습이었다고 한다. 일일이 하나하나 철거해가며 최대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거쳐 탄생한 곳이다. 철거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사 기간이 배로 늘어났으며, 비용도 많이 추가된 경우이다. 철거 당시 전문가와 상의 없이 공사 인부들에게만 의존하여 결국은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북성로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과정과 함께 현재의 북성로의 기술생태계를 방문자들에게 소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⁵⁾

셋째, 청년창업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로 운영하는 '북성로 허브'이다.



[그림 9] 사회적 기업가 육성센터 '북성로 허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북성로 근대건축물 중 단연 으뜸가는 건축미와 보존성이 뛰어나며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이다. 이곳은 1920년대 모자가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1950년대 자유당대구경북도당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한때 이기붕 전 부통령의 아내인 박마리아 여사가 살았다는 증언이 있는 곳이다. 최근 수제화공장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한참 동안 비어있었다. 최근 북성로공구박물관과 함께 리노베이션사업을 진행한 곳으로 대구사회연구소 협동 경제단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센터인 '북성로 허브'[그림 9]가 입주한 공간이다. '북성로 허브'는 창업을 도와주는 허브이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며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돕는 곳이다. 2층은 사무공간이며 3층은 라운지로 만들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토크쇼와 소규모 공연, 워크샵,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허브는 장소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진행된 곳이다. 북성로와 가까운 대구역 바로 뒤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예비창업 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창업에 관한 수요는 센터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결국 '북성로 허브'는 공실이 발생하고 활동이 저조했다. 주변 시장조사가 미흡하여 활동이 제한적이고 현재는 다른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

북성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 다양한 문화가 섞여 진정한 콜라보를 추구하는 하나의 큰 실험실인 곳이기도 하다. 위에서 소개한 카페 삼덕상회, 북성로 공구박물관, 북성로 허브의 내용을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2014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백서, 대구시 중구청, 2015, p32

[표 1] 동일 지역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유사 개발사례

구분	카페 삼덕상회	북성로 공구박물관	북성로 허브
준공연도	1930년대	1930년대	1920년대
장소	북성로2가 49-2	태평로2가 19	북성로1가 74
입주시기	2011. 8	2012. 8	2012. 10
공사완공	2011. 10	2013. 5	2013. 5
협력 체계	지 자 체	설계지원	설계·시공 지원
	민간	사)시공연, 개인	대구사회연 구소협동경 제단
전경			
역사성	상가, 철물점	미곡상, 공구상회	이기봉 전 부통령 박마리아 여사 생가
구성	건축사무소, 카페	박물관, 전 시장 운영	사무공간, 복합공간
현재사용율	폐업	운영중	계획변경중
비고	장소 협소, 접근성 불 리, 경영不	철거, 공간 계획 난조 (반복 공사)	원 형 보 존 양호

3-2. 분석결과

카페 삼덕상회, 북성로 공구박물관, 북성로 허브를 건물 이해와 장소적 측면(역사적, 문화적, 사회적)과 계획과 비용산출 측면, 철거의 중요성 측면, 다자간의 협업과 소통 측면, 마지막으로 경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표 2]와 같다.

[표 2] 사례의 건물 이해와 장소적·계획과 비용산출·철거의 중요성·다자간의 협업과 소통·경영적 측면의 분석

구 분	카페 삼덕상회	북성로 공구박물관	북성로 허브
건물 이해와 장소적 측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너무 좁은 공 간에 2개의 사무실을 운영 함으로써 활용 이 어려움 -카페를 운영 하기엔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음	-북성로공구거 리에 우호함으로 매우 적합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적합함	-건물의 역사적 상징과 업태가 부적합 -인근에 유사한 센터가 있어서 운영에 차질

계획과 비용산출 측면	-건축사가 직접 계획하고 시공 하여 적합함	-철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공간계획의 같은 변경으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음
철거의 중요성 측면	-충분히 고려 하고 진행함	-철거 작업 난항 겪음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발생	-원형 보존이 가장 잘된 건물이라 철거 에 순조로움
협업과 소통측면	-건물을 완공 후 운영자를 모집 한 경우라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음	-설계자와 운영자가 동일 조직이라 원활함	-처음부터 계획과 운영을 같이하여 비교 적 원활함
경영적 측면	-카페 운영자 같은 교체 어려움, -잘대 공간 부족	-공익적 성격 을 가짐으로 - 중구청 보조금 받아 운영	-공간의 특성 과 활용 방안 미흡, 어려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페 삼덕상회’는 계획과 공사, 비용면에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공간적 특성을 살리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성로 공구박물관’은 역사성이나, 문화적, 사회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철거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창업과 사회적기업 양성 기관인 ‘북성로 허브’는 북성로 근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건물의 원형 보존이 잘된 곳으로 역사성을 지닌 건물이나 주변 시장의 변화와 같은 계획 변경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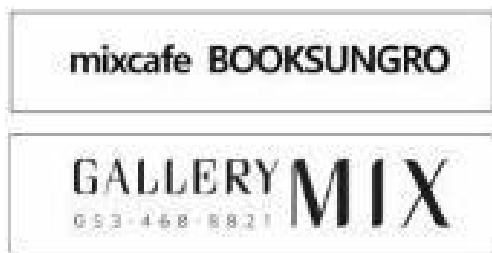
4. 복합문화공간 ‘믹스카페북성로’ 개발사례

3-1. 브랜드 네이밍

‘믹스카페 북성로’ 프로젝트는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10여 명이 모여 「믹스문화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만든 첫 번째 사업이다. ‘믹스’의 사전적 의미에 ‘섞다’, ‘조화를 이루다’, ‘버무리다’, ‘어중이 떠중이’ 등의 의미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성에 있다고 생태학자들은 주장한다. 2014년 당시 문화예술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콜라보, 공유, 삼인삼 등 이색적인 만남과 새로운 시도가 한참 붐인 시기이기도 하였다. ‘북성로’란 지명은 공구 거리로 형성된 곳이라 조금은 거친 느낌과 촌스러운 뉘앙스가 느껴진다. 반면에 현재도 근현대 문화예술인들의 흔적과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맥을 이어오는 거리, 시간과 공간이 충척된 공간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길다는 단점이 있어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영문 표기를 'BUK' 에서 'BOOK'로 바꾸어 책을 연상하도록 하여 문화적 공간임을 알리고 싶었고, 3층 갤러리 또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갤러리 믹스'로 정하였다. 외에도 몇 가지 디자인이 제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네이밍 위주의 단순한 로고디자인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10]



[그림 10] '믹스카페북성로' 와 '갤러리 믹스' 로고디자인

3-2. 철거작업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함께 힘들고 심사숙고한 과정이 바로 철거작업이다. 오래된 근대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는 많은 함정이 숨어있다. 본 공사에서 철거 기간이 한 달 이상이 걸렸고, 원형을 보존하고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건물의 철거작업은 무엇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11] 1층 기존 창틀을 남겨두고 철거를 진행(좌)

철거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한 예시(우)

건물자체가 오래되고 부식이 되어 철거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그때그때 즉각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목조건물은 구조를 보존할 부분과 제거할 부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2] 시간이 많이 소용된 목조건물 철거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만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근대 목조주택은 오랜 경험과 옛날 건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목수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3-3. 1층 내부와 파사드

본 프로젝트는 '북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아 진행한 공사인 만큼 규정에 따라 건물 파사드 부분은 준공 당시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층과 3층 외부는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타일도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테라스 부분 철제펜스나 외부 장식이 양호한 편이었다. 공사 또한 약간의 보수작업과 보완작업 정도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으로 얼룩과 먼지가 묻어 수차례 세척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13] 건물 파사드와 잘 보존된 철제 펜스

관건은 창호였다. 1층 입구 출입문은 변형이 심했고 틀은 나무틀로 예전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하며, 예전 사진과 자료를 찾아 여단이 나무문으로 교체하였다. 2층 창은 사용이 전혀 불가해서 틀과 창을 형태만 같은 디자인으로 교체하였다. 문제는 3층 창호였다. 3층 창은 총 4칸으로 2층과 같았지만 2곳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어서 최대한 복원을 하였다. 창의 형태는 창틀 속에 도르래를 삽입하여 수직으로 여단은 전형적인 근대건물의 목조 창호 형태이다.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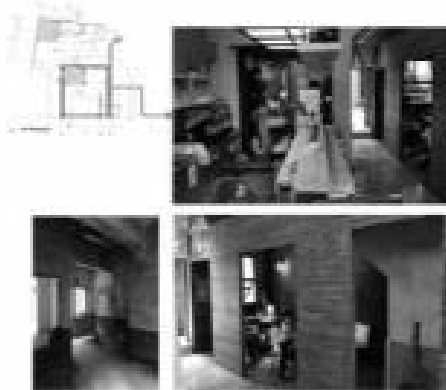
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개는 그대로 사용하고 2개는 사용할 수 없는 고정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또한, 본 건물의 특별한 곳은 아라베스크 문양을 한 철제펜스이다. 지금처럼 기성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직접 망치로 두드려서 제작한 펜스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지라 심미성이 아주 뛰어나다. 직선의 콘크리트 건물에 곡선의 철제펜스가 잘 어우러진 형태이다. 세월과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고 모던클래식(Modern classic)한 느낌의 외관은 본 건축물의 얼굴이며 상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그림 14] 건물 파사드와 출입구

전면부 1층의 내부는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었다. 주방과 통로 그리고 박스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분리하였다. 주방의 벽면을 자주색(Purplish color)에 가까운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였다. 오래된 건물이라 전체적으로 회색과 저채도계열이 많아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든다. 이 부분을 잡아줄 강하고 화려한 색상이 필요했고 '믹스카페북성로' 로고의 메인 컬러인 오페라를 주방 벽면에 도색 하였고, 결과는 화려하고 주목성이 뛰어나 생동감 있는 카페 분위기와 어울렸다. 이 컬러는 화장실 벽면과 전단지, 초대장 등 여러 곳에 통일감 있게 사용하였다.



[그림 15] 1층 출입구 공사 전, 후 내부

1층 안쪽 목조건물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 적산 가옥의 형태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철거작업 때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한 곳이다. 기둥 부분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일이 덧붙이고 깎아가며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다. 특히, 벽면디자인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공간이다. 당시 벽면 공사는 흙벽이어서 석회가루를 섞어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회와 흙을 반죽하여 시공하였다. 그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벽면을 살려 공사를 하였다.



[그림 16] 1층 목조건물 벽체 보존 사진과 공사 전, 후

3-4. 2층 내부와 다다미방

‘믹스카페북성로’의 핵심 공간은 2층 메인 건물 내부와 다다미방이라 할 수 있다. 앞 동과 뒷동 목조건물을 이어주는 테라스 공간, 그리고 골목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야외테라스도 매력적인 공간이다.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고 좋아하는 곳이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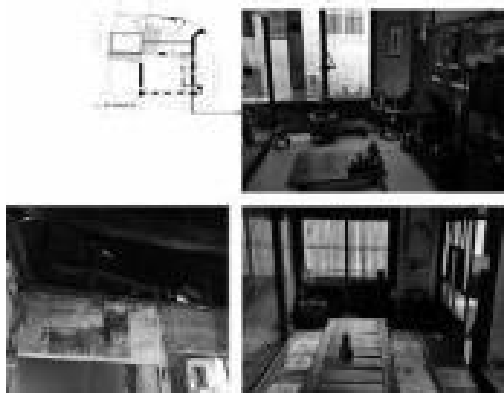
[그림 17] 2층 메인 홀 공사 전, 후 내부

2층 앞 동 건물의 벽면과 바닥의 색을 결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세월이 만든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부가작업을 최소화해 원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결정은 도색을 하지 말고 칠을 벗겨 보기로 하였다. 도장 인부가 몇 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유럽 건물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환상적인 벽면으로 재탄생 되었다. 그리고 그 벽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바닥의 컬러를 화이트로 결정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은 국내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벽면이 만들어졌다.



[그림 18] 5번 이상 그라인드를 통해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2층 천정, 벽면

또 하나는 다다미방이다. 1930년대로 추정되는 이 건물은 적산가옥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실내 테라스와 야외테라스가 밖으로 연결되어있다. 다다미방을 공사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일흔이 넘는 다다미장인에게 부탁하여 비용은 좀 들었지만 흡족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벽면이나 구조는 최대한 원형을 살렸다. 여성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그림 19] 2층 목조건물 내 다다미방 공사 전, 후

목조주택 전면부를 수정하여 만든 실내테라스는 투명한 PVC 재료 지붕을 사용하여 자연광이 들도록 하였고, 창 의 원목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토존이다. 야외테라스는 도시의 속살인 뒷골목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197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어릴 적 뛰어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2층은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다양한 공간과 많은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재생되었다.



[그림 20] 2층 테라스 공사 전, 후

3-5. 3층 내부와 '갤러리 믹스'

1층과 2층이 카페 공간인 만큼 3층은 문화 활동을 위한 갤러리로 설계를 하였다. 갤러리는 '믹스카페 북성로'인 만큼 아이덴티티 차원에서 '갤러리 믹스'로 정하였다. 3층은 단순한 박스구조라 갤러리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였으며, 내부구조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과 전시장으로 구분하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유리 칸막이를 사용하여 개방감이 들도록 하였다. 갤러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바닥과 전 벽을 화이트로 처리하였다. 창호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벽을 접었다 펼 수 있도록 하여 전시 때는 부스로 사용하고 평상시는 벽면을 접어서 자연광이 잘 들도록 디자인하였다. 거칠고 오래된 클래식한 창과 화이트로 처리한 모던한 벽면의 조화는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예술가들은 기존전시장 스타일인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시회를 열었으며 전시를 하고 싶은 작가들의 예약이 빗발치기도 했다. 3층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단연 전면부의 창호이다. 구조적으로도 뛰어나며 쓰임새도 훌륭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기

[그림 21] 3층 ‘갤러리 믹스’ 내부 공사 전, 후

3-6. 정원

과거에는 마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정원으로 설계하였다. 대략 6평 정도로 작은 공간이지만 건물 전체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도시 속 허파와 같은 공간이다. 녹색의 나무와 다양한 야생화, 금붕어, 검은색과 흰 자갈, 벽면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감상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성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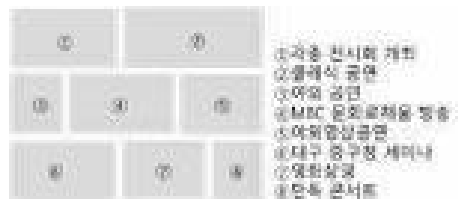
[그림 22] 마당 철거과정과 공사 중 사진



[그림 23] 시공 후 정원 사진

3-7.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 세미나, 모임,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지면상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4] 전시, 공연, 방송촬영,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위의 디자인 개발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25]와 같다.

장소	A동 1층	A동 2층	A동 3층	B동 1층	B동 2층	정원
전체						
문						
창						
계단						
방						
욕조						
화장실						
복도						
입구						
출구						

[그림 25] 믹스카페북성로 개요 및 전체 디자인 내용

5. 결론

용도 폐기된 옛 건축물을 시대에 맞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물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옛사람의 지혜가 담긴 디자인은 물론이고 땀과 노력, 그리고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평면적 사고에 익숙한 시각디자인 전공자로서 공간과 동선을 포함한 전체를 보고 읽어 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근대건축물을 재생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전 건물에 대한 이해와 주변 장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물은 홀로 존재할 순 없다. 도시, 거리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역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과 유기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형성된다. 즉, 건축물 또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시간 속에서 용도를 다한 건물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한다. 하나의 건축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선 적어도 주변 거리와 건축물을 이해하고 접근할 때 거리에 녹아들며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앞장에서 설명한 ‘북성로 공구박물관’의 사례는 아주 좋은 사례이다.

둘째, 시설 운영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자금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 공사에서 비용이 추가되고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좀 더 특이한 일이지만 특히, 건물 재생디자인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공사는 주어진 공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제약이 많으며, 관과 운영자의 소통 부족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각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운영자는 좀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시공자는 작업의 질보다 지원금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며, 또한 지원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결국은 자금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사 기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을 하는 ‘북성로 허브’의 경우 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공간 활용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건물철거 시 정확한 계획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철거가 필요하다. 철거는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중요한 디자인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번 철거한 부위는 다시 복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월이 만든 아름다운 흔적을 영영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공사 인부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며 테이프와 경고 문구 등 여러 보조수단을 동원하면 효과적이다. 건물에 대한 재생디자인 작업에 있어 철거는 단순철거가 아닌 매우 중요한 ‘디자인 과정’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장소적 측면이나 계획 등 모든 것이 훌륭하였지만 충분한 고려 없이 철거를 진행함으로써 배로 늘어난 공사 기간과 많은 비용을 지출한 ‘북성로 공구박물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넷째,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된 기존 건물을 리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중간중간에 많은 수정이 반복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가와 많은 논쟁과 공사 인부와 잦은 다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경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공간 활용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염려에 두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이 중첩된 복합문화공간 ‘믹스커피북성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져 100년을 거쳐 2022년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수많은 애환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건물이나 물건들을 철거하고 짓는 과정에는 비용과 더불어 환경에 필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개발을 위해선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행정가들의 인식 고취와 지속적 관심과 일관된 행정이 필요할 것이며, 디자이너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우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2014년 북·서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백서, 대구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2014.
2. 권상구 외 4명, 「어반 아카이브」, 국토연구원, 2014.
3. 김수현, 대구 북성로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장소브랜딩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 남미경,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슬로디자인 활용

-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2015. Vol. 21, No.3
5.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 도심 건축자산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록화 연구용역」, 2013.
6. 박세경, 대구역사문화거리의 장소성 인식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7. 이나영, 안재섭,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제17권 1호, 2014.
8. 이영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공간과 사회, 제23권 4호, 2013.
9. 이호상, 이명아,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과학 예술포럼, Vol 10, 2012.
10. 정영환, 유진영,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의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7권, 4호 통권 22호, 2012.
11. 최정수, 북성로 100년 거리조성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17.
12. www.naver.com.
13. www.jung.daegu.kr